



한은, 2011년 중 자금순환 발표

최 원 선임연구원

- 한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총 금융자산은 2010년 말 대비 565조 8,000억 원 증가한 1경 894조 4,000억 원을 기록함.
 - 금융자산 구성내역별로는 현금통화 및 예금(18.3%), 대출(18.2%) 비중이 각각 0.4%p 늘어난 반면, 주식 및 출자지분(16.9%) 비중이 1.3%p 줄어들었으며, 보험 및 연금(5.4%), 채권(19.2%)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.
- 국내부문의 경우 금융자산이 2010년 말 대비 544조 9,000억 원 증가한 9,926조 6,0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, 금융부채는 537조 6,000억 원 증가한 8,040조 9,000억 원을 기록함.
 - 부문별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법인이 가장 크게 증가(306조 1,000억 원)하였으며, 가계 및 비영리단체(115조 5,000억 원), 비금융법인기업(75조 1,000억 원), 일반정부(48조 2,000억 원) 순으로 증가함.
 - 부문별 금융부채의 경우 금융법인, 비금융법인기업, 가계 및 비영리단체, 일반정부가 각각 279조 5,000억 원, 128조 8,000억 원, 86조 9,000억 원, 42조 4,000억 원 증가함.
 - 순금융자산(금융자산-금융부채)은 7조 3,000억 원 증가한 1,885조 7,000억 원을 기록함.
 - 부문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, 금융법인, 일반정부의 순금융자산이 각각 28조 6,000억 원, 26조 6,000억 원, 5조 8,000억 원 증가한 반면, 비금융법인기업의 순금융부채는 53조 8,000억 원 증가함.
 - 금융자산/금융부채 비율의 경우 1.23배를 기록하여 2010년 말 1.25배보다 하락함.
 -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/금융부채 비율도 2.09배로 2010년 말 2.15배보다 하락함.
- 2011년 중 자금조달 규모의 경우 일반정부 부문만이 축소되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늘어났으며, 자금운용 규모의 경우 모든 부문이 확대됨.

-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대비 4조 1,000억 원 늘어난 85조 6,0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, 자금운용 규모도 7조 3,000억 원 확대된 149조 1,000억 원을 기록함.
- 비금융법인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28조 원 확대된 145조 1,0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, 자금운용 규모도 18조 4,000억 원 확대된 79조 원을 나타냄.
- 금융법인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규모는 각각 45조 5,000억 원, 48조 1,000억 원 늘어난 249조 7,000억 원과 267조 5,000억 원을 기록함.
- 일반정부의 자금조달 규모는 5조 원 축소된 34조 6,000억 원을 기록한 반면, 자금운용 규모는 4조 6,000억 원 늘어난 56조 9,000억 원을 기록함.

(2011년 중 자금순환, 한은, 3/16)